

## 중국의 찍은 거대한 세상, 아침.낮.밤

글. 육명심 사진가

중국은 지금 막 일어서고 있다. 중국이라는 중화(中華)의 태양이 21세기 전 세계의 수평선 위에 바야흐로 힘차게 떠오르고 있다. 10년 가까이 촬영을 위해 중국을 내 집 드나들듯이 한 사진가 이상엽은 한마디로 말해서 중국은 지금 전세계를 향해 자신감 넘치는 세계적인 신생강국(新生強國)으로 당당하게 부상하고 있다고 한다. 15세기 르네상스 이후 내리 수세기 동안 전 세계를 지배해 온 서양인들 앞에서 이제 중국인들은 세계 그 어느 나라에 대해서도 자신만만하게 신생대국의 동양인이라 한다. 하기가 서양인들마저 중국은 2020년쯤에는 세계 제일의 강국 미국을 제치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앞설 것이라 예견하고 있으니 중국에 대한 그의 취재 소감은 맞는 말인 것 같다.

### 방대하고 다양한 중국

이상엽은 1997년부터 중국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한번 떠나면 적어도 한 달 이상씩 중국 각 지역을 두루 촬영하였다. 어떤 때는 1년에 두 번도, 세 번, 네 번도 갔다. 그만큼 그는 집중적으로 이 사진작업에 몰두했다. 그의 중국 본토 첫 번째 촬영은 쓰촨 성(四川省) 청두(成都)와 그 일대부터 시작했다. 1년 뒤에는 중국을 대표하는 개방도시 광저우(廣州)와 그 주변도시를 찍어 나갔고 그러고는 곧장 시안(西安)으로 달려갔다. 그 다음해에는 방향을 크게 바꾸어 동북 연안도시인 단둥(丹東), 텐진(天津), 칭다오(靑島), 샤먼(廈門), 선전(深圳), 상하이(上海) 등을 돌았다. 그런 다음 그 후년에는 다시 동북쪽으로 방향을 돌려 선양(瀋陽), 베이징(北京), 내몽고(內蒙古) 등을 두루 돌아다녔다. 해가 바뀌자 다시 윈난 성(雲南省), 간쑤 성(甘肅省), 쓰촨 성을 비롯해서 이제까지 발길이 닿지 아니한 지역을 찾아 다녔다. 이렇게 그 이후로도 몇 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넓디넓은 중국 대륙 전 지역을 두루두루 누비고 다녔다.

이렇게 직접 몸으로 중국의 거의 전 지역을 돌며 경험한 이 나라에 대한 인상은 우리가 이제까지 『삼국지』 정도를 읽어서 알고 있는 중국하고는 전혀 판판인 실로 상상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라고 한다. 그는 또한 중국이 한족을 제외하고 55개나 되는 소수민족들로 구성된 단일국가라는 특색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그런 만큼 중국문화는 매우 다양하여 어떤 국가보다 더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그 어떠한 새로운 문화도 쉽사리 받아들이고 소화할 수 있는 문화적인 저력과 순발력이 있다 한다. 이상엽은 이 밖에 중국의 국토 면적과 인구에 대해서도 유의할 것을 강조한다. 중국 땅덩어리는 유럽 대륙 전체의 면적만큼이나 광활하며 국민의 머릿수는 유럽 인구 전체의 두 배가 넘는다. 그렇게 때문에 경제적으로 내수 시장(內需市場)의 상업적인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고 한다. 그는 또 일찍이 린위탕(林語堂)이 말한 것 처럼 국토가 너무나 광활하고 방대해서 역사적으로 양쯔강을 경계로 동일한 시대에 동일한 문화권에 속하면서도 지역적으로는 성격이 각기 판이한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그러므로 중국에 대한 알팍한 이해로 중국의 문화를 안다고 했다가는 큰코다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한 나라 안에서 문화적인 성격이 다른 나라와 달리 복잡하고 심지어는 상반되기까지 하므로 어디까지나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당부하기도 한다.

중국의 찍은 거대한 세상, 아침/낮/밤

이상엽은 이렇게 방대하고 다양하며 또한 복합적인 중국을 그의 사진집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세 부분으로 분류해서 보여준다. 매우 현명하고 지혜로운 구성과 정리를 한 것 같다. 그는 이러한 방식으로 광활한 중국 대륙의 무려 10억이 넘는 인구가 함께 뒤엉켜서 바야흐로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그리고 이와 거의 동시에 맞물려 정보화 사회로 숨 가쁘게 돌아가는 복잡다단한 상황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이 사진집은 현재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롭게 발전하여 변화해 가는 중국의 복잡하고 다양한 모습을 모두 '오늘, 하루'라는 프레임 속에 요약하고 있다. 즉 중국 전역을 '아침'과 '낮' 그리고 '밤'으로 공시(共時)적인 삼부의 구조로 파악하고 있다.

국토가 마치 대양처럼 한 대륙 전체를 이를 만한 방대한 면적이기 때문에 한 나라의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벌어지는 시간상의 편차를 크게 한 묶음으로 간단히 처리하였다. 그리고 지난날 어느 나라나 산업혁명으로 사회적인 구조가 뒤바뀌는 과정에서 겪기 마련인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사회적 이면의 현격한 명암도 함께 뒤섞음을 통해 결과적으로는 상호간의 극명한 대립을 보여준다. 이는 중국이 다민족국가라는 특색과 아울러 아주 뚜렷하고 분명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 밖에도 산업화와 정보화의 사회적 변화과정에서 앞서가는 지역과 진보 속도가 아주 뒤져 있는 지방 사이의 격차가 하나의 단면으로 상호간 대비를 극명히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효과를 연출하고 있는 편집 방법은 사진가 이상엽이 현장에 몸소 뛰어들어 찍히는 대상들과 똑같은 시간과 공간 속에 함께 밀착되어 있는 현실 그 자체인 동시에 또한 몇 발걸음 뒤로 물러서서 바라보는 조망의 시각이기도 하다. 즉 '아침'이라는 시간이 프레임 속에 한통속으로 한꺼번에 정리한 장면들은 공간적으로 서로 간에 각기 동떨어진 현장들이다. 그런데 이것들이 모두 다 '아침'이라는 동일한 시간 안에 모두 일목요연하게 동시적으로 파악되는 것은 모든 장면들을 동일선상에 놓고 한 시야 안에 들어올 만큼 심리적으로 일정한 거리를 떼어놓고 바라봄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하여 이상엽은 이 사진집을 통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게 하여 중국을 부분적으로 보여주기도 하지만 실은 전체적인 큰 틀 안에서 보기를 권하고 있다 하겠다. 이는 결과적으로는 시간과 공간적으로 항용 우리가 바로 눈앞에 대면하게 되는 일면적인 시각과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재구성해서 통합한 다면적인 시각을 동시에 보여줌으로써 전체를 통한 부분적인 이해를 유도하는 것이다. 아무튼 이 같은 이상엽의 사진 편집방식은 얼핏 보기에 단순하면서 조금은 색다른 것 같지만 깊이 있게 살펴볼수록 여러 가지 의도가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다 하겠다.

이 사진집이 독자들에게 제시한 편집방법은 인간이 바깥 대상을 바라보는 주체의 시점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면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드러난다. 일찍이 데카르트는 세상을 원근법적으로 바라보는 원점을 자아의 주체적 시점에 두었다. 즉 그는 전 세계를 자기를 중심으로 한 주체적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이것이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를 바라보는 일반적 방식이다. 간단하게 말해서 땅을 딛고 지상에 두 발로 서서 세상 밖을 내다보는 방식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상엽이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이런 눈과는 보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아주 다르다. 좀 더 정확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진을 통합적으로 재편집해서 중국을 보여주는 시점은 우리네 일상적인 시각하고는 전적으로 그 시각의 방향이 상반된다. 이상엽의 이러한 관점은 그의 육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는 아주 정반대의 입장에서 서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지상에 있는 인간의 시점과 하늘에 높이 떠 있는 태양의 시점이 서로 간에 대극(對極)적으로 그 방향이 상반된다는 사실을 먼저 상기해 보자. 우리의 시점은 어디까지나 발을 딛고 서 있는 땅에서 하늘

로 향한다. 그런데 하늘에서 지상을 굽어보는 태양의 시점은 정반대로 하늘 쪽에서 지상을 향하고 있다. 이를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한다면 시간은 태양을 위로 향해 바라보고 태양은 지상의 인간세계를 아래로 향해 내려다보고 있다. 이상엽이 이제까지 찍어 온 모든 사진을 '아침,' '낮,' '밤'이라는 세 시간대로 분류해서 재편집한 시점은 바로 다른 아닌 태양이 하늘 한가운데 공중 높이 떠서 지상세계를 내려다보고 있는 시점이라 하겠다.

인간은 본디 시간과 공간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유한한 존재이다. 그러므로 일정한 시간과 일정한 공간 속에서만 대상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중국의 상공에 높이 떠 있는 태양은 어떠한가. 아무리 중국 땅이 대양(大洋)처럼 광활하고 끝없이 넓다 해도 하루를 내리비추는 태양의 일조권(日照圈)에 동시적으로 한꺼번에 다 들어오기도 오히려 남는다. 이 사진집에서 '아침'이라는 시간 안에 포함되는 전국적으로 펼쳐져 있는 저마다의 공간들은 하루가 시작되는 아침에 밝은 태양의 눈빛 안에 한꺼번에 다 들어오는 지상의 풍경들에 지나지 않는다. '낮' 풍경도 '밤' 풍경도 낮과 저녁 때 한꺼번에 태양이 지상을 내리비추었을 때 한눈에 모두가 동시적으로 들어오는 그 시간대의 한 장으로 정리되는 풍경일 따름이다. 그러므로 그가 10년 가까이 그 넓디넓은 중국 대륙을 발이 부르뜨도록 두루 돌아다니면서 솔하게 많이 찍어댄 다량의 사진들을 이 같은 태양의 시점에서 본다면 단지 세 컷의 거대한 풍경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사진들을 셋으로 분류한 시간의 단위인 '아침,' '낮,' '밤'은 공교롭게도 하늘에서 태양이 하루를 비추는 바로 그 시간대이다. 이러한 시간들은 정서적으로 태양의 이미지와 직결되며 한 걸음 나아가서 지상세계를 내리비추는 태양의 시점과 그 맥이 상통한다 하겠다.

#### 새로운 예술적 영감

끝으로 이상엽의 이번 중국 사진집 발간은 한 사진가의 성장과정에서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으리라. 그 까닭인 즉, 여기에 지적하는 시점이 이제부터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차원적으로 한 단계 더 높게 열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큐멘터리 사진의 본령은 통상적으로 현실 한가운데로 뛰어 들어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지금, 여기'라는 시간과 공간에 못 박혀 있다. 그런데 그는 이번에 우연인지 필연인지 일단 그 고정적인 틀에서 벗어남으로써 한 가지 새로운 작업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하리라. 작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러한 성과는 알고 보면 그냥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결코 아니다. 끊임없이 땀을 흘리고 쉬 없이 계속해서 작업에 몰입함으로써 끝내는 우리네 어머니들이 찰떡같이 믿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새로운 예술적 영감의 계시가 내리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일찍이 발명왕 에디슨의 말은 그야말로 진리이다.

"99퍼센트의 노력 끝에 마침내 1퍼센트의 영감이 찾아온다" 는 바로 그 말이다.